

# 올 것이 오고 있다

## 곽소진

디알티 인터내셔널 부사장

한국전쟁의 잿더미에 출발해 쌓아올린 우리 경제가 지난 40년 동안 급성장하게 되었고 이에 세계의 눈은 아시아의 네마리 용의 하나로 불려졌던 한국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해말 타결된 UR은 쌀시장만을 개방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의 협정이 아니라 나라간의 교역 대상이 될 만한 분야란 분야는 다 들어있다. 물론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지적소유권도 전체 협정 안의 별도 협정, 즉 UR/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를 통해 강도높은 수준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안에는 도서를 포함해 음반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공업소유권 등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저작물의 보호를 '불공정'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약속까지도 들어 있다.

UR/TRIPs는 그 조항에서 회원국이 베른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우리도 참여하여 UR을 타결한 이상, 우리는 협정의 서명이나 국회인준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조만간 베른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베른은 일반적으로 동맹국 자국이 자신의 저작물들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다른 동맹국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급보호의 일반적 원칙'이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지금 보호하지 않고 있는 87년 10월 1일 이전에 출판된 외국 도서저작물도 베른의 저작권 보호의 일반적 기준인 저자 사후 50년의 수준으로 소급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출판인들과 관련 인사들이 이 소급보호의 적용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업계 내의 큰 파란(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상당수의 책이 '불법'이라고 판정받는다)을 염려하는 하면서도 이 '동맹국간의 별도협정'과 같은 제한조항에 기대를 걸며, 어떻게 되겠지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실정을 전면에 내세워 이 소급보호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을까? 우리 출판인들이 걱정하는 번역출판물의 경우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 근거는 국제적 선례와 지금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국제적 위상과 거기에 따라 우리에게 베른협약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 국제적 분위기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포괄적인 불소급원칙을 천명한 바가 있지만 이미 가입 당시 자신이 UCC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 수준이 전반적으로 베른의 수준에 근접해 있었다. 한편, 작년에 베른에 가입한 중국의 경우는 이와 달리 실상 도서의 분야에선 원칙적으로 제한없는 소급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기존의 계약을 맺지 않은 번역출판물은 발효 이후의 중판은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생각해볼 것은 UR의 지적소유권부문이 세계 10대 교역국의 하나가 된 우리에게 선진국 수준의 협약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파격적인 유보조치가 어느 정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다. 소급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이 소급보호의 대상에 드는 기존 국내 출간 번역도서를 예외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출판계로서는 더 큰 관심사항이 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선의의 계약 출판권 취득자의 보호문제 등 여러가지 연관된 걸림돌 때문에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UR/TRIPs는 발효일로부터 최소 1년부터 5년까지의 경과기간을 부여할 수 있지만 베른협약은 그 보다 선행되어 발효되리라 전망된다.

우리 출판계나 관련부처가 베른 소급보호의 합리적 제한을 위해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하지만 국제적 수준으로 우리 출판계를 높이는 것이 유일한 활로임을 인식한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관점에서 업계내 대책 및 국내법제 정비의 논의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 출판계는 그간 경제의 성장에 맞추어 외형적으로는 비대해졌지만 어떤 의미에선 온실속의 화초처럼 약하기 짝이 없다. 올 것이 오고 있다. 앞으로 예고된 출판시장 개방에 들어올 외국 출판사와 넉넉히 겨룰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정말로 전력투구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이다. 이런 개방의 위협을 절적으로 크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때 성공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표지인물	2	동학전쟁 전모 그린 장엄한 역사의 벽화 대하소설 「녹두장군」 전 12권 완간한 송기숙씨
초점	4	국제화시대 국제화전략 다룬 책 쏟아진다 개인 및 기업 국가 차원의 대응책 모색
시론	6	한국방문의 해에 한국을 알리는 책이 없다 외국인 방문객 위한 실용적 여행가이드 태부족
화제의 책	7	연세대출판부 펴냄 「홍이섭 전집」
서평	8	오영환 외 「과학과 형이상학」 — 엄정식 윤이홍 「현대인의 삶과 종교」 — 김종서 9 김재은 「정보화시대의 어린이...」 — 김원주 10 문병호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 민형원 조규익 「가곡창사의 국문학적 본질」 — 박규홍
확대서평	11	한국의 엘리트 '서울법대' 출신의 집단초상 — 송우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외
시집서평	12	고통 속 깨달음 찾는 시인들의 몸부림 — 차창룡 이 겨울의 시집서평
연재기획	13	책은 인간적 사유의 노동가치 창출되는 곳 — 김상환 책의 존재와 사물의 존재 ② 책의 능산적 존재양식
초대석	17	철학책 한우물 파기의 고집과 끈기 경영합리화로 전문출판 어려움 극복하는 서광사
이 책 그 사람	18	「세계에겐대백과」 낸 윤신근씨 「여백의 질서」 낸 김찬호씨 19 「음악, 귀로 마시는 그 황홀한 술」 낸 이순열씨 「이매진, 세상으로 만든 노래」 낸 신현준씨
해외출판	20	「복악세서리」 다양화로 독자들 눈길끈다 — 유은영 책갈피 장서표 책꽂이 등 도서관권 주변상품 큰 인기
세계의 책	22	영상으로 포착된 아성의 땅과 생물들 — 배병삼 랜팅의 「오카방고, 아프리카의 마지막 낙원」 외
	24	독자서평
	26	화제의 신간
	28	신간안내
	34	200자 안내
	36	신간목록
	47	출판계 뉴스/프리즘
	48	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